

|육군 6사단 병장 전역|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리:스펙 제대군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 제대로 응원합니다

2024년 제대군인 주간 10.7~10.11

리:스펙 제대군인 2024 October Vol.224

리:스펙 제대군인

아그데아그데

: 열매 따위가 잇따라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굿 JOB 굿 LIFE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대표!
당신을 응원해요!

성공 길라잡이

2024년 제대군인 주간,
리:스펙 제대군인



고속도로 재난안전 관리
안은평 예비역 육군 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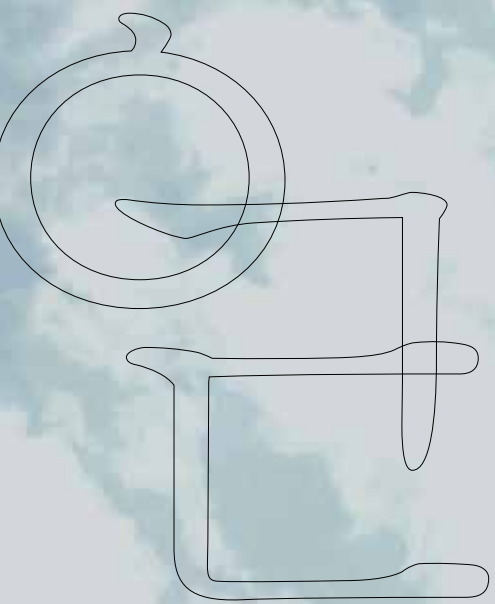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ol.224
2024 October

10



아그데아그데

: 열매 따위가 잇따라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바람이 상쾌하게 코끝을 스치던 어느 가을날.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마치 자연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새싹보다 보잘것없던 작은 씨앗이 긴 시간을 거쳐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까지. 나무는 제자리에서 비와 바람,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흔들림 없는 인내의 시간을 거쳐왔겠지요.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결실을 이루기까지.

그 기다림과 인내는 열매가 나무에 가득 맺히는 순간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찬란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저마다의 길을 걸어 나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Contents

통권 224호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f www.facebook.com/mpvakorea
 ▶ www.youtube.com/user/mpvakorea
 @ www.instagram.com/bohun_story
 X x.com/hun2day
 blog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라: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korea),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gain my Life 라

새 삶의 시작을 응원

아그테아그테

: 열매 따위가 잇따라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06 매치포인트

한국 브랜드로서 세계 최고라는 수확을 거둔 기업의 이야기
 젠틀몬스터 & 헬리녹스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08 리:스펙 히어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높은 교통사고 확률을 낮춘다
 *안은평 예비역 육군 대위

12 선배의 노하우 Zip

경비인력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이성희 예비역 육군 원사

16 굿 JOB 굿 LIFE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대표! 당신을 응원해요!
 *노현정 예비역 해군 소령 김태훈 가족

Change Work 일

제2의 업을 찾는 방법

18

지속 가능한 미래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22

성공 길라잡이

2024년 제대군인 주간, 리:스펙 제대군인

24

Zoom IN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미있는 디지털 치료
 *이모티브

26

방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쌈, 마이웨이>로 알아보는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 양성사업

28

꿀팁전당포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삶, 건강하게 누리는 갯생
 *건강 유튜브 추천

30

백 투더 잡

조선시대에도 범인 잡는 여성 형사가 있었다
 *다모 & 형사



Better Live 락

즐거움이 있는 삶

32

여행 보일지도

가을에 더 멋이 나는
 *경북 칠곡

36

무엇이든 물어보살

행복을 담은 공간
 *김미리 『아무튼, 집』,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저자

38

전국군대자랑

문 병장은 미식가? 대식가?
 *전창훈 예비역 공군 중사

40

오늘도 ESG

하루 한 끼 채식, 어렵지 않아요
 *10월 1일 세계 채식인의 날

42

다 함께 PLAY

깊어 가는 가을
 마음을 채워줄 추천 도서

한국 브랜드로서 세계 최고라는 수확을 거둔

기업의 이야기

젠틀몬스터 & 헬리녹스

올림픽은 참가에 의의를 두는 세계적인 축제이지만, 가장 높은 단상에 우리나라 선수가 올라가 금메달을 받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은 언제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감정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을 봐도 피어오르지요. 오늘은 나무에 아그데아그데 열린 과실처럼 성공을 쌓아나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 젠틀몬스터와 헬리녹스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매치포인트

세계적인 명품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는 김한국 대표가 금융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영어교육업체에 이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매출 위기에 처한 회사를 위해 안경 사업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김한국 대표는 2011년 젠틀몬스터 브랜드를 만듭니다. 사업 초기 매출이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그는 입소문을 낼 목적으로 유명 타투이스트와 협업을 추진해요. 그는 아는 연예인에게 제품을 전해 달라는 김 대표의 부탁을 '디자인이 예쁘지 않다'는 말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김 대표는 디자인 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안경 산업은 안경점과 제작업체 간의 담합으로 신생 업체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젠틀몬스터가 디자인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제품들은 디자인이 이쁘다는 입소문이 났죠. 고객이 먼저 제품을 찾게 되자 안경 산업의 카르텔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은 패션아이템'이라는 젠틀몬스터의 전략이 맞아 들어간 것이예요. 2013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는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덩달아 주인공 전지현 씨가 착용한 젠틀몬스터의 제품도 인기를 끌었어요. PPL이 아니라 코디가 디자인이 예뻐서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에 투자한 덕을 본 거죠.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젠틀몬스터가 알려졌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것도 젠틀몬스터의 인기를 더해주었어요.



젠틀몬스터 _ 출처, SBS



젠틀몬스터 _ 출처, 중앙일보

Gentlemonster & Helinox

헬리녹스 루브르이벤트 _ 출처, helinoxstore.co.kr



헬리녹스 HCC _ 출처, helinoxstore.co.kr



백화점 매장과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독특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수길과 홍대의 플래그십스토어와 주방·대중목욕탕·세탁소 등 실험적인 콘셉트의 공간마케팅을 실험했고, 항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이뷔통 모기업의 투자와 몽클레어, 펜디와 같은 글로벌 명품브랜드와 협업, 블랙핑크 제니와 같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백화점에 가면 명품브랜드와 함께 가장 좋은 매장에 입점해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쌓였습니다. 2017년에는 스킨케어 코스메틱 브랜드 '탐버린즈(tamburins)'를 런칭하고, 2021년에는 디지털 브랜드 '누데이크(NUDAKE)'를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은 모두 엄청난 이슈가 되어 성공해요. 현재 젠틀몬스터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 7개국에 진출해서 전체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캠핑용품 브랜드가 된 헬리녹스

헬리녹스는 DAC(동아 알루미늄)라는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DAC는 전 세계 텐트 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대중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순조로운 성장을 하던 DAC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은 라제건 대표의 경험 때문이에요. 미국 과학잡지에 라 대표가 개발한 텐트가 소개되었는데, 정작 라 대표나 DAC에

대한 소개는 빠지고 텐트 브랜드 직원들의 인터뷰만 실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DAC는 더는 뒤에 숨지 않고 브랜드를 설립하며 전면에 나서요. 그리스의 태양신 헬리오스와 밤의 여신 노크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딴 헬리녹스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려웠어요. 무게를 줄인 등산 스틱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2년 캠핑 의자 '체어원'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반전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 캠핑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으며,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캠핑용품이 된 겁니다.

헬리녹스가 인기를 끌자, 다양한 브랜드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합니다. 2016년,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슈프림'과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돼요. 슈프림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그 이상의 의미로, 캠핑용품에서는 헬리녹스가 업계 최고라는 것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슈프림 이후에도 나이키, 포르쉐, 디즈니 그리고 2021년 BTS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 발매돼요.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BTS 덕분에 아웃도어에 한정되어 있던 헬리녹스라는 브랜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캠핑에 관심 없던 BTS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헬리녹스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남편들은 BTS 덕에 고가의 캠핑장비를 구매할 수 있어 신났다는 밈(meme)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헬리녹스는 캠핑용품 업계에서 드물게 오프라인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데, 서울 중심부 건물 한 채를 통째로 모든 제품을 체험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캠핑 마니아에게는 이미 상당히 유명한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이제 헬리녹스는 캠핑 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45

헬리녹스 BTS 3D 이벤트 _ 출처, helinoxstore.co.kr

**암에 걸릴
확률보다 높은**

**교통사고
확률을
낮춘다**

**안은평
예비역 육군 대위**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도로 옆이나 휴게소에서
'비트박스'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비상등 켜고 / 트렁크 열고
/ 밖으로 대피 후 / 스마트폰으로
신고'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예비역 육군 대위 안은평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권진혁 영상 오철민



Interview



●●●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

끔찍한 사회적 참사가 잇을 만하면 한번씩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과 건강, 그리고
피땀 흘려 일군 많은 재화들을 한번에 앗아간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사고현장과 유가족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온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준
다. 한 번 일어난 사고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
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많은 사고들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는 연간 사
망
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이다. 오늘은 고속도로건설
관리업을 하고 있는 '제이영동고속도로'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고속도로상에서 벗어질 수 있는 모
든 사고의 예방과 사고 수습의 최일선에서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은평 씨를 만났다.

"저희 회사는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강원 원주까지 이어지는 광주-원주고속도로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점검, 보수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재난에 대비
하여 행안부의 주관하에 안전한국훈련과 재난관리평가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
기
에서 위험성평가 등 저희 회사 직원들의 안전과 더불어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안전 분야의 실
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

재난안전관리라는 용어가 쉽게 와닿지는 않는다. 회사의 재난안전담당은 결국은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인데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는 회사에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언뜻 볼 때에 고속도로에서는 달리는 차만 조심하면 큰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터널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터널 내에서 전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전사고 등의 전기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각종 표지판이나 이정표, 또 톨게이트나 도로 위에 전광판 같은 것들을 수리하고 보수하시는 분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므로 전기위험뿐만 아니라 낙상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를 주로 하는 교통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순찰하시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만나면 렉카차나 보험회사가 와서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현장을 정리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예방책들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는 한 가정을 파괴한다

전역 후 재난안전관리라는 낯선 일에 도전했는데 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군에서 작전 분야와 매우 흡사합니다. 더군다나 안전한국훈련의 경우, 결국 훈련의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 프로세스가 군과 거의 동일합니다. 군에 복무하던 당시 정보/작전 분야에서 상당 기간 복무하였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임에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의 경험 덕분에, 올해 안전한국훈련에서는 104점 만점 중 103.5점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에 복무하던 당시 정보/작전 분야에 해당 기간 복무하였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임에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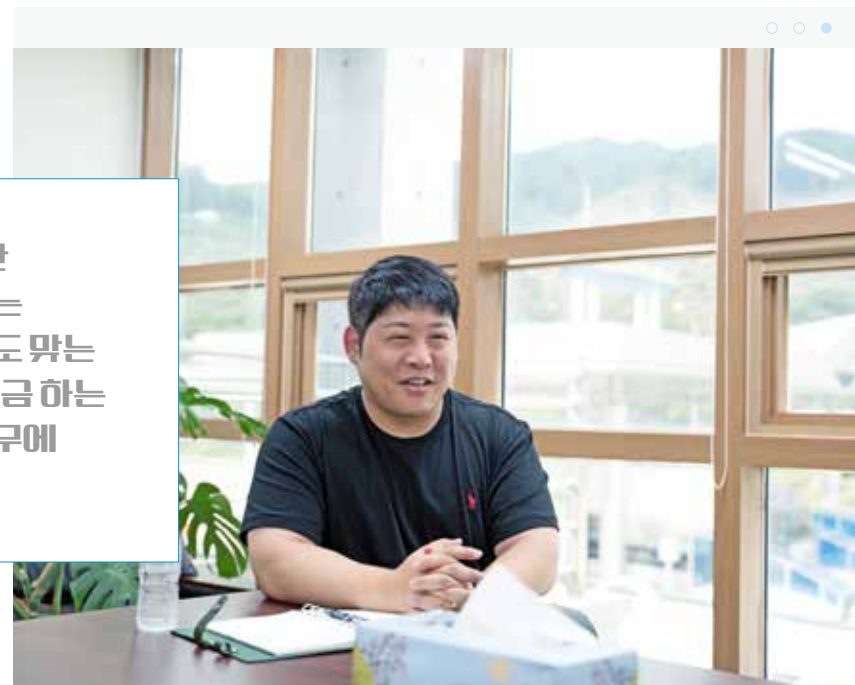
Interview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일을 하는 것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만 반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물어보았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님이 사고로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한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제가 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안전분석 전문가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일 자체가 주는 보람도 크고 제 성격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에 익숙해져야겠지요. 우선 내년까지는 ISO나 기업체의 기업 연속성 계획 같은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각종 자격증 및 석사학위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전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쪽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고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비록 지금 첫 걸음마를 떼었지만 훗날 안은평 씨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는 데 한 축을 담당하기를 기원해 본다. 🍀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일 자체가 주는 보람도 크고 제 성격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에 익숙해져야겠지요.”



경비인력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이성희 예비역 육군 원사

Lee Seounghee

군인이 국가를 지키듯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파트를 비롯한 규모가 있는 건물과 시설의 대부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와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하는 예비역 육군 원사 이성희 씨를 만났다.

글 김현정 사진 오철민



Guard

멘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멘토: 저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만기 전역한 이성희라고 합니다. 군에서는 주로 Motor Cycle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전역 무렵에는 주요 경비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 및 지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제경보산업이라는 업체에서 관리이사로 인력관리 및 교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멘티: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멘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각종 건물이나 시설들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예를 들면 경비업무를 보시는 분,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청소하시는 분 등 건물을 관리하는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인력만 해도 40개 가까운 건물에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새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Certificate

멘티: 이곳에 입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멘토: 부대에 있을 때는 전역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어디 갈 데가 없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역을 하고 보니 갈 만한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경비지도사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땀었고, 컴퓨터는 조금씩 할 줄 알아서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과 워드마스터 자격증을 땀는데 마침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구인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법안차도 주시고, 직급도 이사직으로 해서 대우를 해주셔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멘티: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멘토: 우선 군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선에 있어서 일에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군에서 장기복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병사들의 인력관리와 교육 및 지도·감독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는 일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군생활을 오래 하거나 저처럼 만기 전역을 하면 나이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을 경비하시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은퇴하신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소통하고 교육하며 관리하려면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이 장점이 되지요. 저희 회사에도 저처럼 관리이사님이 여럿 계신데 나이로 따지면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멘티: 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멘토: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직급별로 아랫사람들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시를 하면 됐거든요. 서류가 필요하면 만들라고 지시하고 다른 곳에 방문할 일도 사소한 일들은 누군가에게 지시하면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죠. 지금은 주로 오전에는 행정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에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멘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많이 어렵지는 않나요?

멘토: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시행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봐요. 1차 시험 두 과목, 2차 시험 두 과목을 보는데 1차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매년 550명 정도만 뽑아요. 평균 95점 이상은 돼야 합격을 노려볼 만합니다. 각 과목당 40문제씩인데 각각 2문제 이상 틀리면 합격이 어렵다고

봐야죠. 군에서 7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니 한 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향후에 또 다른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멘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일인데 막상 저에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보면 정말 신경 쓸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 성격이 좀 꼼꼼하고 아기자기한 편이라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을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툴툴 털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제가 조경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하는 일을 잘 마치고 나면 나중에는 조그맣게라도 사람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멘티: 전역을 앞둔 후배들에게 사회생활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멘토: 다들 전역을 앞두고 고민도 많고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기왕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예로 들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산업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산업안전관리기사 자체도 중요하고 회사에서는 두 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취업대상이지요.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관리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경비지도사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1년에 한 번 1, 2차 동시에 시험을 보며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음.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함.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대표! 당신을 응원해요!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최우수상 (요약본)

노현정

예비역 해군 소령 김태훈 가족

청천벽력(靑天霹靂)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늦은 저녁. 뉴스를 통해 귀성길과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119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시 남편은 해군 장교로 가족들과 떨어져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 포항을 향해 달렸다. 걱정과 두려움에 눈물이 앞을 가려 밤길 운전이 힘들 정도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뒷좌석에 잠들어 있었다. 6살 아들과 5살 딸아이가 무엇을 알았겠는가? 이통 중에 119구급대원과 통화하며 남편이 이송될 병원을 확인하였다. 남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포항 인근에서는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였다. 의식이 없고, 출혈이 너무 심하여 응급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치의 교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수술이 시작되었다. 3시간 여의 응급수술이 끝나고 “현재 응급처치는 하였으나 출혈과 골절이 너무 심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위중한 상황입니다. 새벽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자고 있었고, 시어머님께서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수술실에서 나온 남편은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의식이 없는 남편을 보며, ‘제발 살아만 주기를! 신이 있다면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를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다. 새벽이 밝았고, 천만다행으로 생사의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고

비를 넘겼다는 안도는 잠시.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왔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2주 만에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였지만, 계속되는 추가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1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일반병동으로 옮긴 후에도 수술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12번의 수술과 치료를 거치며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주치의 교수님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부터는 병원을 옮겨 재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장애가 남을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활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대형병원은 환자가 수술 이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수술적인 치료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전원, 즉 병원을 옮겨야 한다. 남편은 사고 이후 10개월을 병상에 누워만 있었다. 골반과 고관절을 비롯한 대부분 관절에 골절을 입은 상황이라 걸을 수가 없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재활이 시작되었다. 사실, 수술 후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보다 재활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들고 안쓰러웠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하는 남편을 보며,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이 다시 걷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었는지 그 고통과 두려움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6개월여의 재활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은 휠체어에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고, 다시 목발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고, 결국 지팡이나 주변의 보조 없이도 혼자서 서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이 병원에서 지팡이를 놓고 첫걸음을 떼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병원 주치의 선생님과 재활담당 선생님, 그리고 많은 환자분의 응원과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남편은 다시 걸었다.

전역 결심과 시험 응시, 그리고 비선

남편은 다시 걷게 되었지만 또 다른 고민에 봉착했다. 그것은 군복무에 대한 복귀 가능 여부와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다. 사실, 남편은 사고 이전의 신체조건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군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전역을 결심하고, 2022년 6월 30일 21년여의 군 생활을 마치고 명예전역을 하였다.

막상 전역을 앞두고 보니 남편과 나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였다.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교 2~3학년에 불과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할지 모든 것이 캄캄한 상황이었다.

전역을 몇 개월 앞둔 시점부터 남편은 취업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그 첫 도전은 소위 비상계획관으로 불리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몸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시험 준비에 장시간을 투자하기 힘들었다. 또한, 서류전형을 위해 한국사, 컴퓨터활용능력, 안전분야 자격증 등 취득해야 할 자격증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남편

은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고 시험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항상 내가 동행하며 보조를 해주었다. 목발을 짚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격려의 마음이 교차하여, 시험 시간 동안 기다리는 차 안에서 눈물지었던 때가 많았다.

그렇게 남편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준비 기간의 부족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비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괜찮아요. 준비 기간도 부족했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하늘의 뜻일 거예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남편과 나는 서로 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허탈감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다.

인생 2막을 시작하였지만

이후 남편은 전역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2개월여간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교육 기간 중 ISO(국제표준화기구)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걸로 전역 2개월 만에 ISO 인증심사 업체에 취업하였고,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 특성상 심사를 위해 전국의 기업들로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체력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출장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그러다 취업 7개월 무렵,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남편이 심사와 컨설팅을 담당하던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장 제의를 받고 전역 후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다.

두 번째 직장에서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임직원 간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해 내었고, 기업에서도 많은 지원과 기대감을 표했다. 그렇게 1년여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무렵 남편이 진지하게 이직에 대한 고민을 털어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사실, 남편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했다. 20여 년을 군에서 경험하고 본인이 느꼈던 가치에 대한 갈망이었을 것이다. 군문을 나왔으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비상대비업무를 계속 동경해 왔었다.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공석이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고, 경쟁률 역시 상당히 높은 선발시험이었다. 시험 범위 자체가 방대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험이다 보니 막상 쉽게 도전해 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더욱이 한 번의 고배를 마셨던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더욱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시간이 허락할 때면 틈틈이 집 근처 도서관을 이용하여 공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공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기회, 우리 남편 꽃길만 걷기를!

올해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선발시험 공고가 있었고, 남편이 기다렸던 공석이 나왔다. 남편은 직장에 양해를 구하여 4월 1일부

로 퇴사를 하고, 곧바로 독서실을 등록하여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에 몰두하였다.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나는 저녁 한 끼 식사하러 오는 남편을 위해, 부족한 솜씨이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가며 저녁을 차려주려 노력했다. 사실,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웠다. 그렇게 남편의 시험 준비 기간은 쏠살처럼 지나가고,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 과천본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혼자 시험을 보러 간다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에 함께 동행하였다. 5월 18일 토요일, 시험장소에 도착하니 햇살과 풍경이 너무도 좋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남편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나는 시험장 주변 동산을 거닐다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하였다. 우리 가족에게 꼭 행운이 따라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이틀에 걸친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비선에 대한 부담감과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상당히 컸다.

시험 준비를 했던 시간보다 시험 후 결과를 기다리는 2주의 시간이 남편과 나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다. 2주 동안 매일 저녁 식사 후 남편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근처 절을 찾아가 기도를 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2024년 6월 3일, 드디어 발표일. 직장을 다니던 나는 아침부터 일손에 잡히지 않았다. 남편 역시 집에 있기가 초조했는지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아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전 10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남편이 2024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해당 계급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은 순간이었다.

2020년 남편의 사고 이후 4년, 그리고 2022년 남편의 전역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 남편 꽃길만 걷기를!

전역을 앞둔 군인분들과 가족분들 역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가족과 함께 헤쳐 나아간다면 반드시 더욱 멋진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군인의 아내이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군인분들과 군인 가족분들의 희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국가보훈부와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군과 가족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46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항공우주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비상하며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을 리드하며 최초로 최고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더 높이 더 멀리 더 큰 세상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 양일석 사진 권진혁



심우영
실장



강태규
수석연구원



김건태
차장



고희석
수석조종사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심우영 실장** KAI는 국가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항공우주기업으로서 우수 제대군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국방의 지속적 실현을 위하여 국방혁신과 연계한 신개념 미래전 양상 예측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는, 군(軍)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KAI는 유능한 인재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300~4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KAI의 주요 방산분야 제품(KFX, LAH 등)의 양산/납품 본격화 및 유무인복합 등 미래전(戰)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제대군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대군인의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회사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을 계기로 삼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대군인 채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별도로 제대군인 전형을 추진하여서 잠재적인 역량을 보유한 검증된 제대군인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 **심우영 실장** 저희 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KAI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및 제작업체입니다. 1999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3社の 항공사업 부문을 통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지난 25년간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과 위성, 발사체 등 우주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항공우주산업 전 부문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관련 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형발사체, 다목적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국가우주사업 전 분야에 참여해 우주개발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초소형위성, 재사용 발사체 등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경제를 실현할 미래사업을 위한 공격적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나요?

○ **고휘석 수석조종사** _____ 저보다 먼저 KAI에 입사한 군 선배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실 공군 전투비행 대대에 있으면서 시험비행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있었지만 추천을 받기 전까지 KAI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가끔 공군의 시험비행조종사들의 얘기를 듣거나 전투비행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시험비행조종사가 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전투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험비행하는 일은 전투기 조종사라면 동경하지 않을 수 없죠.

○ **김건태 차장** _____ 14년도에 처음으로 군에서 방산 업무를 접하게 되었고, 당시 의무후송전용헬기 체계개발 사업 소요군 담당자로 약 4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방산업체라는 곳을 방문한 곳이 KAI였고, 그때부터 이런 곳에 근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역 후 서울 소재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가족들이 연고지 근처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여 퇴사하고 KAI에 입사하였습니다.

○ **강태규 수석연구원** _____ 제가 전역할 무렵 KAI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항공 및 잠수함 분야의 우수한 훈련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있었으며, 약 3년 전 해군 고속상륙정(LSF-II) 시뮬레이터 체계개발사업 수주로 체계개발 완료 후 실함과 가장 유사한 기동특성 요구사항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경험 있는 고속상륙정 조종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군(軍) 최초로 미(美) 고속상륙정 조종사와 정 수료와 해군 고속상륙정(LSF-II) 조종사 및 HJ중공업 건조 후속함 2척에 대한 시운전 테스트 파일럿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회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회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 **고휘석 수석조종사** _____ 제 업무가 공군에서 전투기를 타던 것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은 제 업무에 있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공군에서 시험비행이 아닌 실제 작전임무를 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전투기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시험비행 경험이 적다 보니 이래저래 회사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군복무 중 경험한 실제 작전 비행은 지금의 비행시험에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 **김건태 차장** _____ 당연히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조직을 이해하는 것에 충분히 연습되어 있다고 느꼈으며, 그로 인해 현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과 해소해 나가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군생활을 통해 익힌 모든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태규 수석연구원** _____ KAI는 국내 방위사업의 대표기업으로서 軍(육, 해, 공군)을 상대로 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대문화에 대한 이해와 업무 특수성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군복무 경험이 이러한 분야의 적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KAI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 **고휘석 수석조종사** _____ 민간인이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KAI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전투기를 타고 싶은 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민간인으로 군용기를 조종하다 보니 군 규정과 민간 법규 사이의 애매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신체검사의 경우에 저희는 군 조종사 신체검사와 민간 조종사 신체검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급 없이 민간인으로서 공군 조종사 선배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 관계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나는 가볍게 조언한 건데 받아들이는 공군 후배는 과거의 선배 조종사가 지적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건태 차장** _____ 우선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업체라는 점입니다. 각 분야의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항공기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체계를 통합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타 회사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의 내용이 같은 일을 단순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연간사업에 대해서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나, KAI는 한 개의 사업이 사업화 / 체계개발 / 양산사업으로 약 10~20년간 진행함에 따라 매 순간순간이 새롭고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강태규 수석연구원** _____ 자유로운 분위기와 쾌적한 근무조건이 보장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워라밸, 복지 및 의료지원이 보장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위치에 따른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업무 출장 시 이동의 불편함이 다소 있지만 지방에 위치한 대기업 근무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 **고휘석 수석조종사** _____ 공군 조종사 근무 시절에는 전역을 해서 '우리 KAI에 입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운이 좋아서 KAI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저처럼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군을 알아보고 지원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건태 차장** _____ 20대에 군 간부로서 군인의 길을 걸었던 시작이 사회의 어떤 조직의 시작보다 절대로 작거나 쉽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제2의 인생을 받아들이면 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 생활 동안의 다양한 경험적 요소들에 대해서 기록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역 후 이력서 작성 /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진출 분야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에 따라 매번 이력서를 새로 작성해야 했고,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기술 등 진출 분야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이 뚜렷하지 않음에 매 순간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상훈, 자격, 경력, 성격, 주변의 평, 특화된 나만의 강점과 단점 등을 잘 기록화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 **강태규 수석연구원** _____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보다는 오늘도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업무 수행에 먼저 감사함을 전하며, 항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경력을 바탕으로 전역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진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및 검토를 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등 국방 관련 취업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제2의 인생 도전에도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대군인 후배님들 모두 멋진 사회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㉞

2024년 제대군인 주간, 라:스펙 제대군인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제대군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국민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둘째 주를 범정부 차원의 ‘제대군인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2012년부터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제대군인법’ 개정(‘21. 12. 9.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법정 기념주간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대군인 주간 운영

기간 10. 7.(월)~10. 11.(금), 5일간
* 정형화된 기념식이 아닌, 국민참여 행사와 홍보캠페인 추진
슬로건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라:스펙』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 제대로 응원합니다

국민참여 현장 행사

일시/장소 10. 8.(화)~10. 9.(수) /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서울 삼성동)
제대군인 주간 선포 세리머니
* 강철부대 출연진과 함께 국민에게 제대군인 주간을 선포하는 군보고 형식
전시 및 체험존 운영



(전시존) 라이브 군복 전시		(체험존) 군복 및 군장 체험
대한민국 대표 군복 모델 착장 전시 (육군·해군·공군·해병 / 남·여 군복) * 국민 제대신고 퍼포먼스 등 진행		① 군복: 군복(상의) 입기 체험 진행 ② 군장: 체험 연령별 무게를 상이하게 구성하여 군장 체험 진행
(응원존) 응원메시지 작성	(포토존) 인생네컷	(정책홍보존) 정책 안내
제대군인 주간 포스터를 활용한 퍼즐 메시지 응원 * 흑백의 포스터가 국민의 응원으로 완성	제대군인 주간 포스터 및 보보캐릭터를 활용한 프레임 등 제공 * 군복 체험과 연계하여 사진 촬영 등 진행	제대군인 취업·교육지원 등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정책 소개

* 경품 추첨, 설문 이벤트(보보 참여) 등 병행



제대군인 주간 홍보캠페인

캠페인 방법 홍보영상 및 포스터 표출
홍보 중점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준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역 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
표출 방법(장소) 디지털 및 코엑스 내·외부 영상매체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및 스타필드 미디어필러> 표출 예시



온라인 이벤트

응원 댓글 홍보영상에 좋아요 & 제대군인 응원 댓글
필터 챌린지 보훈부 인스타그램 필터 사용 스토리 업로드
사진 이벤트 군 복무 또는 전역 사진 응모
참여 대상/방법 국민 누구나 / 보훈부 유튜브, SNS 등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2024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선정
* 신규 20(10월 1일부): 대기업 11, 중소기업 9
현판식 10월 중 기업 소재지 보훈(지)청 주관 실시
* 보훈부 주관: 10. 11.(금) 14시 / KAI 서울사무소(서울 강남)
인증기업 혜택 금리우대, 관세 조사유예, 주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등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미있는 디지털 치료 ——— 이모티브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정신질환에 대해 돌아보자.
최근 성인 ADHD가 이슈다. 아동기에 ADHD를 치료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아동이 거부감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모티브가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글 이재경 사진 이모티브 제공

게임을 활용해 ADHD 증상 완화를 돕다

국내 ADHD 진단 환자 수는 2023년 기준 15만 명에 이르렀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진단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 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ADHD는 이름대로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억제력 부족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질환이며 치료하지 않을 시 성인기까지 증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ADHD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완치도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초기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민정상 대표가 설립한 이모티브는 ADHD 아동들이 더 즐겁게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치료제(이하 DTx) ‘스타러커스(Star Ruckus)’와 헬스케어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조이코그(JoyCog)’를 개발했다. ADHD 치료를 위한 약물과 인지행동치료 방법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모티브의 솔루션은 아이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기존의 치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모티브와 함께하는 ‘즐거운 치료의 시작’

집중에 어려움을 보이는 ADHD 아동에게 게임은 좋은 흥미 요소다. 또한 DTx는 알약이나 주사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부작용 확률이 낮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약물 사용량을 줄여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는 것이 장점이다. 이모티브에서 개발한 게임형 DTx ‘스타러커스’는 인지모델링과 머신 러닝을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ADHD 증상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게임에 접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40분 이상 게임을 진행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중독의 위험도 방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 외에도 일반 아동들도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솔루션인 ‘조이코그’ 서비스는 집중, 학업, 충동 억제,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게임처럼 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5곳의 대학 병원과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업한 서비스다.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임 형태의 맞춤형 인지 강화 솔루션이 제공된다. 매일 30분, 주 5회씩 꾸준히 사용했을 때 실제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아동도 흥미를 가졌다.



DTx 개발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모티브

민 대표는 이모티브 설립 전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사회·환경적인 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사회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보고자 후배와 함께 꾸준히 방향을 탐색한 끝에 미국에서 게임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서비스가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받은 사례를 발견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인공지능과 게임을 결합하여 DTx를 개발하는 이모티브가 탄생했다. 초기에는 게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는 DTx나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해 이모티브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모티브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다. 치료가 즐거워지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환자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이모티브는 ADHD 아동을 비롯해 전 세계 어떤 사용자라도 양질의 치료를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오늘도 열정적인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더 많은 질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모티브는 DTx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조이코그와 동일한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DTx 스타러커스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탐색임상시험을 넘기고 확증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다. 이모티브는 2023년 CES 혁신상, 레드닷 디자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민 대표는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가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대병원과 함께 진행한 자폐 아동 연구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탐색 임상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우울증에 대한 게임적 접근도 시도하려 한다. 이모티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노리고 있다. 일본, 베트남과 컨택 중이며 추후에는 유럽으로도 진출해 볼 계획이다. 임상 인증을 모두 마친 후 여러 제약사와 협업도 시도해 보려 한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이모티브가 보여줄 행보가 기대된다. ☎

사진 출처_ KBS

드라마 <쌈, 마이웨이>로 알아보는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 양성사업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고졸 인재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 양성사업’은 고졸 청년들이 직무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현장 실습까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벌도 ‘스펙’도 없지만
나만의 분야로 특별하게
성공할 거야!



‘고졸 출신’의 눈부신 도약을 그리다

학창시절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던 고동만(박서준)은 현철한 외모에 뛰어난 실력으로 촉망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실수로 좌절하고 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며 돈벌이를 하면서도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인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최애라(김지원)는 동만의 죽마고우이다. 어릴 적부터 신데렐라보다 삼국지 장비를 선호했고 어디서든 제힘으로 우뚝 도드라지는 스타일이다. 그런 타고난 기질로 10년 내내 동만을 애라의 방식대로 지켜왔다. 애라의 오랜 꿈은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였다. 하지만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늘 발목을 잡았고 현실은 백화점 인포데스크에서 ‘최 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애라 역시 현실에 주저하기보다는 방송국 대신 지방 행사에 나서고 격투기 전문 아나운서가 되며 품고 있던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만과 애라는 ‘고졸 출신’의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



Q.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 양성사업이란?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AR·VR, 드론,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공장을 방문해 견학하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활용 등을 배워 이론과 실무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훈련은 3가지 단계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신기술 기초지식 및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행하고, 2년 차에는 신기술 전문지식 훈련과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한 관심을 제고한다. 마지막 3년 차에는 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본격적인 취업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Q. 사업 추진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참여학과 및 훈련기관 선정	상반기 사업수행	중간 보고	하반기 사업수행	사업결과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서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승인	훈련프로그램, 교원연수 등 사업운영	상반기 추진실적 및 1차 사업비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훈련프로그램, 교원연수 등 사업운영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Q. 고등학생 취업 지원 관련 정책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을 연계 제공한다.

* ① AI 기반 직업·진로탐색 지원 ② 개인 맞춤형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③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 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⑥ 장기성장로드맵 마련 등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훈련 과정으로,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My own routine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삶 건강하게 누리는 갓생

• 건강 유튜브 추천 •

01

김소형채널H

우리 전통의 약초를 이용한 건강법을 소개하는 채널은 없을까? 본초학 박사 김소형 씨가 운영하는 '김소형채널H'는 한의학의 약초 요법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약초 요법과 현대의학, 영양학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통합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채널이다. 10대부터 80~90대까지 즐겨 찾는 '김소형채널H'는 다이어트, 모던 본초강목, 탕차 요법, 건강니우스, 몸이 보내는 신호 등 다양한 '건강정보' 영상이 넘쳐난다. 꼭 알고 싶던 건강 정보는 물론 가로수길 견방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운동 소개 등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김소형 박사의 생각도 엿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보자.

02

오징어약사TV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전해주는 채널이 있을까? '오징어약사TV'는 가장 쉬운 건강 채널을 표방하며 건강한 40~60대를 보내기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모든 병의 근원인 당뇨와 관련된 위험한 음식, 좋은 음식,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반찬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다. 또한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법과 치매 예방법, 감기 걸렸을 때 꼭 필요한 효과 좋은 감기약, 치약, 안약 등 신기하고 유용한 콘텐츠가 가득하다.

03

힙으뜸

요즘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라는 해시태그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홈트에 도전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힙으뜸'을 구독해 보자. '힙으뜸'의 하루 10분 시리즈는 매일 아침 8분 스트레칭, 10분 스쿼트, 10분 슬로어비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매일 함께하는 운동 챌린지 코너에서는 30일 플랭크, 스쿼트 100개 챌린지, 복근 만들기 30일 챌린지 등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04

리틀약사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건강한 영양제 문화를 이끄는 채널 '리틀약사'는 전문가의 지식을 우리 생활 속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채널이다. 약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설명하며 비타민D, 종합비타민, 마그네슘 등 많은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제에 대해 진솔하게 알려준다. 또한 단식, 걷기 운동, 집에서 뱃살 빼는 법 등 유행하는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평소 궁금했던 영양제 정보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운동과 식단 정보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나만의 루틴은 일상 속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라이프 사이클이다.

100세 시대가 당연한 요즈음, 제대로 된 건강 채널을 구독해 보자.
궁금했던 영양제 정보에서 운동까지, 헬스 라이프를 위한 모든 정보를 모았다.

조선시대에도 범인 잡는 여성 형사가 있었다

다모 & 형사

BACK TO THE JOB

영화 『조선미녀삼총사』 스틸컷 사진 출처: www.themoviedb.org

차를 준비하는 관비지만, 여성 전담 형사이기도
다모



다모(茶母)는 관청에서 차를 관리하고 대접하던 여성 노비를 뜻한다.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인 식모의 ‘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고위 관리들이 차를 즐겨 마시기에 차 심부름을 하는 관비가 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헌부 관원들은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의견을 나누거나 긴급한 일로 한밤중에 ‘야다시(夜茶時)’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때에 다모가 차를 준비해 주었다. 다모는 중앙 관청뿐 아니라 도로와 역마를 관리하는 ‘역’이나 마을의 관아, 포도청 등에도 배속되던 흔한 직업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모는 형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녀 칠세부동석의 관습으로 인해 남성 포교와 포졸은 첩이나 기

생의 집을 염탐하거나 수색할 수 없었기에 지명 수배된 죄인이 여성의 집에 숨어들었는지 확인하는 일에 다모가 활약했다. 치마 속에 쇠도리깨와 포승줄을 숨기고 들어가 죄인을 직접 체포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금부에서는 다모를 뽑을 때 키가 5척(약 165cm) 이상이며 쌀 다섯 말을 쉽게 들 수 있고 막걸리 서 말을 단숨에 마시는 강한 여성을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다모는 조선시대 후기가 되며 차 마시는 풍습이 쇠퇴하면서 형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찬모로 변했다. 개화기 이후에 다모들이 차를 파는 찻집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형사 역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수사관
형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형사’는 경찰 중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을 일컫는다. 다모도 첩이나 기생의 집을 수색하여 죄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형사가 하는 일과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다모는 본업이 따로 있었으며 여성의 집을 수색하는 경우에만 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형사보다 수사 업무의 범위가 좁다는 차이가 있다. 다모는 여성으로만 선정했던 것도 형사와는 다르다. 오늘날 형사과의 구성은 지역 경찰서와 경찰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찰청의 경우 폭력이나 절도부터 살인·강도까지 다양한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계, 과학수사와 지문 관련 업무를 맡는 과학수사계, 마약류 범죄를 총괄하는 마

약범죄수사대, 중요 사건이나 신종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 부서가 나뉜다.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지능범죄를 수사하기도 한다. 언제든 수사를 나갈 수 있어 항상 사복 차림인 것이 특징이다.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대학이나 경찰 공무원 시험을 통해 경찰관이 된 후, 관련 부서로 발령을 받아야 한다. 휴일에도 출근해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잠복근무를 할 때는 열악한 잠복 환경 속에서 범인을 놓치지 않도록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보람으로 남다른 사명감을 지닌 의미 깊은 직업이다.

가을에 더 멋이 나는

경북 칠곡

호국의 성지이자 요즘에는 인문학의 성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칠곡.
낙동강이 흐르고 곳곳에서 가을을 느끼게 해 준 칠곡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왔다.

글 박재현 사진 동아문화사





물과 바람이 있는 안식처 칠곡보생태공원

물이 있는 곳에 발길이 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칠곡보생태공원은 눈앞에 흐르는 낙동강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탁 트인 잔디밭에 앉아 물멍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된다. 돛자리를 깔고 낮잠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 강변에서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 수면제가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자전거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미풍을 가르며 자전거를 즐길 수도 있다. 자전거가 없다면 그저 걸어도 좋다. 산책길 역시 잘 만들어져 있고, 벤치도 있어 여유롭게 공원을 거닐 수 있다. 가을이 되면 공원 한편은 핑크물리로 물든다. 액자 모양의 포토존에서 재미난 포즈로 사진을 찍어 보자. 매년 10월 초에는 칠곡낙동강평화축제가 열린다. 여러 공연을 비롯해, 헬기, 탱크 탑승, 각개 전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올하는 개막식 최초로 시민이 함께하는 평화 대행진을 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해 보길 권한다.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552



구국의 현장 다부동전적기념관

외관부터 압도적이다. 탱크 모양의 건물은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상상케 한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며, 구국의 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이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다. 당시 북한군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낙동강까지 내려왔다. 이때 다부동 전투를 통해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고, 인천상륙작전과 북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부를 둘러보는 게 어떨까. 내부로 들어서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 6·25 전쟁의 흐름과 다부동 전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과 영상도 있어 흥미롭게 빠져들게 된다. 당시 썼던 실제 화기와 다양한 군사 물품을 통해 전쟁 당시의 급박함과 잔혹함이 전해진다. 건물 외부에는 탱크와 비행기, 미사일 등도 전시돼 있어 당시의 상황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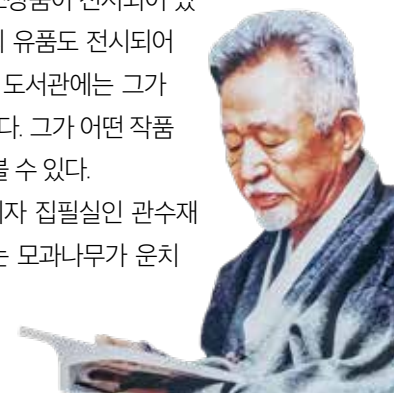
가을에 만끽하는 시 한 편 구상문학관

가을이 되면 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날씨 때문일까. 이 무렵 우리는 스스로에게 달기 위해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책을 펼쳐 본다. 이번 가을엔 구상의 시를 읽어 보는 게 어떨까.

구상문학관은 칠곡에서 살며 작품 활동을 한 구상의 작품과 생애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1층 전시실에는 활동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와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서화, 액자, 병풍, 기념패 등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 그의 옷, 모자, 돋보기, 안경, 넥타이 등의 유품도 전시되어 그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2층 도서관에는 그가 소장했던 2만여 권의 책을 그대로 소장하고 있다. 그가 어떤 작품을 읽고 어떤 구상을 했는지 흥미롭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건물 밖엔 자그마한 한옥이 있다. 그의 거처이자 집필실인 관수재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한옥 앞에 있는 모과나무가 운치를 더한다. 여기서 조용히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새삼 가을이라는 걸 알게 된다.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91



손맛을 느껴 보다 칠곡공예테마공원

전시회를 관람하다 보면 직접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 그림과 사진은 우리가 쉽게 해 볼 수 있지만, 공예는 그렇지 않다. 칠곡공예테마공원에서는 이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다. 공원은 지역의 공예 인재 발굴과 공예 산업 발전을 위해 2년 전에 만들어졌다. 특히 한옥 스타일의 건물은 밖에서부터 눈길을 끈다.

공원 안에는 미술관과 공방이 어우러져 있다. 예태미술관의 '예태'는 예전의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라는 뜻으로, 다양한 전시를 통해 새로운 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하에 있는 네 개의 공방은 가족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도자기를 비롯해 천연 비누, 디퓨저, 전사컵, 우드아트 등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며 체험해 볼 수 있다. 참가비도 저렴한 편이라 부담이 없다.

가을에는 이곳을 비롯해 칠곡의 여러 장소에서 국제트랜스미디어축제가 열리니 흥미로운 미디어로 칠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70-1



행복을 만드는 공간

글 김미리

『아무튼, 집』,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저자

Q 안녕하세요, 군인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오랜 단체 생활과 관사 생활을 했던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은 물론 저만의 공간을 제대로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집이라는 곳이 주는 치유와 재충전, 그리고 나만의 공간미학 같은 것을 갖추자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A 처음 저만의 공간을 꾸릴 때를 떠올려 봅니다. 벽차고 설레는데 한편으로 막막하고 아득하기도 했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질문을 받고 그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비슷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더 많은 텐데요. 새로운 집을 그려보는 이 마음만은 닮아있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공간을 꾸려가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공간을 계획할 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몇 년 전 저는 시골의 작은 한옥을 고쳐 오도이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폐가였던 시골집을 고쳐 살자고 마음 먹었을 때, 제 최우선 순위는 보존과 보안이었어요. 세월을 간직한 집의 모습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혼자 지내기에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 안 곳곳에 이가 맞지 않는, 낡은 전통 창호문이 있었어요. 이 여러 개의 문들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알아보니 픽스창(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통 창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 쪽에 이중단열 픽스창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전통 문양을 온전히 살리면서 보안과 단열에도 효과적이니까요. 하지만 픽스창을 끼운 문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니깐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없을 텐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반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보존과 보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면 편리함은 어렵지 않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 공간을 구상하기 전에 차분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면서요. 정보와 조언을 토대로 나만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면 공간을 꾸리는 여정 내내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하시길 추천합니다. 가족, 동거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모두가 행복한 집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도이촌: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



일상 속 취향 수집

취향이라는 단어는 집과 같은 공간을 이야기할 때 짝궁처럼 붙어 다니죠. 멋진 집을 보면 '이 집은 사는 사람의 취향이 그대로 느껴지네요'라고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취향을 알고 공간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는 독립한 이후에도 내내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고 시도하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무난한 것들을 선택해 왔죠. 그런데 갑자기 제 취향으로 공간을 채우려니 난감했어요. '내 취향은 뭘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가구와 집기 구매를 앞두고는, 급하게 여러 책과 SNS를 찾아보며 좋아 보이는 것들의 사진을 잔뜩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아 놓고 나니 너무 장식적이거나 공간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예산 대비 지나치게 비싸거나요. 결국 수많은 참고자료는 넣어두고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발견하면 얼른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사진 속 그릇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더 마음에 드는 제품과 브랜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동네 책방에 놓인 커다란 나무 책장에서 영감을 얻어, 제게 필요한 책장을 구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의 모양과 공간 크기, 수납해야 하는 책의 수량들을 고려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점차 스스로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모양은 그냥 익숙한 거구나', '이런 건 멋지지만 나의 사용 방식과는 맞지 않네' 하면서요. '취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려면 충분한 시간과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른 멋진 공간을 꾸리자는 목표가 있으니 자꾸만 서두르게 되지만,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도록 일상 속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카페에서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외출을 꺼리는 편인데도 카페만은 예외로 두었죠. 어느 날은 휴대폰 속 사진첩을 살펴보다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늘 통유리 창가, 식물이 가까운 자리에 앉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볼까? 고민 끝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공간과 제 앉은 키에 맞춘 제품으로요. 반려묘에게 해롭지 않은 반려식물들도 몇 개 들였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왜 좀 더 일찍 이런 공간을 꾸미지 못했을까 싶어요. 이제 저는 카페보다 집에서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선호해요. 지금 이 글도 식물과 가까운 창가 테이블에서 쓰고 있어요. 이 곳에서 읽고 쓰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거든요. 제 행복효율이 가장 극대화되는 공간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멀리 떠났다가도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집의 어떤 공간은 나와 가족 구성원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해요.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이라도요. 집을 구성하는 사소한 물건이라도요. 매일 돌아오는 곳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말이예요. 멋진 집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에 따라 멋진 집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멋진 집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간을 채워나가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소중한 사람'과 '소소한 시간'을 떠올리고 있어요. 집이라는 건 지붕 아래 공간, 함께 사는 존재들, 함께 보내는 세월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니깐요. 타인의 기준 말고 나만의 기준, 일상 속 작은 영감, 가족과 보낼 순간들을 마음에 두고 공간을 꾸리시면 어떨까요? 어떤 멋진 공간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 단단히 자리 잡는 우리 집이 될 거라고 믿어요. ☺

문 병장은 미식가? 대식가?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하루 한 끼 채식, 어렵지 않아요 10월 1일 세계 채식인의 날

채식이나 '비거니즘'을 실천해 보자는 말은 왠지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일상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는 행동을 이어 간다면 그것이 쌓여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우리 밥상 하루 한 끼 채식, 해볼 만하다.

정리 편집실

1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해보는 세계 채식인의 날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연일 우리를 죄어 오는 상황 속에서 채식은 조금의 생활 습관 변화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환경운동이다. 10월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은 국제 채식인 연맹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하루만이라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채식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국제 채식인 연맹은 1908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설립된 유서 깊은 단체다. 연맹에서는 채식주의를 여덟 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채식을 포괄하고 있다.

채식은 낯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며,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한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의 채식 인구는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채식을 가볍게 선호하거나 지향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

아는 것이 힘, 채식주의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최근 자주 들리는 비건(Vegan)이라는 표현은 1944년 영국의 '비건 뉴스(The Vegan News)'에서 채식주의(Vegetarian)의 앞뒤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일반적으로 비건이라 하면 육류, 생선, 꿀, 유제품 등 동물을 이용한 모든 식품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를 일컫는다. 비건을 지지하는 것을 '비거니즘(Veganism)'이라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뿐 아니라 모피, 가죽, 울, 실크 등 동물성 소재 제품도 멀리한다. 흔히 비건식에 낯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단번에 비건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세계 채식주의 연맹에서도 가끔 육류나 생선을 먹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까지를 채식주의 분류에 포함하고 있으니, 육식을 줄이는 것으로 천천히 이에 동참할 수도 있다.

프루테리언 (Fruitarian)	
비건 (Vegan)	
락토 베지테리언 (Lacto-vegetarian)	
오보 베지테리언 (Ovo-vegetarian)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Lacto-ovo-vegetarian)	
페스코 베지테리언 (Pesco-vegetarian)	
폴로 베지테리언 (Pollo-vegetarian)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3

비거니즘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거니즘에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콩이나 옥수수 등을 먹는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은 많은 식량을 소모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적은 양의 육류를 얻기 위해 전체 생산량의 45%나 되는 곡물이 필요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가축을 기르면 초원이나 산림을 훼손하게 되고, 의외로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도 지구 온실가스 발생량의 18%에 달하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식량과 환경적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물 학대에 가까운 많은 가축 사육 환경이 육식 습관을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과도한 육식은 성인병 발병 확률을 높이므로, 식단에서 채식 비율을 늘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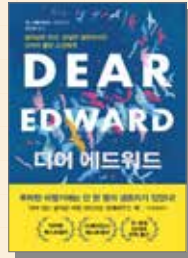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하루 한 끼 채식 도전!

갑자기 채식을 시작해 보려 해도, 외식은 어디에서 해야 할지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으면 된다. '채식한끼'는 밖에서 식사할 때 채식 메뉴가 있는 가게를 상세히 알려 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앱 내 이용자 리뷰도 제공해 유용하다. 비건 맛집에서 식물성 재료만을 이용해 만든 창의적이고 신기한 요리들을 맛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이니 도전해 보자. '제철밥상'은 비건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앱을 통해 제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레시피도 제공하여 채식 식단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된장국, 두부조림, 김, 나물무침, 감자볶음 등의 반찬이 모두 약간의 신경만 쓰면 채식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지역의 제철 농산물로 신선한 밥상을 차려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깊어 가는 가을 마음을 채워줄 추천 도서

한 권의 책이 주는 따뜻한 위로가 더욱 깊이 와닿는 계절이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문학 작품부터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지혜까지. 티 없이 맑은 가을바람과 함께 독서의 낭만을 더해보자.



디어 에드워드

앤 나폴리타노 | 쌤앤파커스

비행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열두 살 소년 에드워드가 우연히 뒷마당 창고에서 이모부가 숨겨놓은 수백 통의 편지 더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줄거리이다. 영화처럼 흥미진진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준다.



88번 버스의 기억

프레야 쏜슨 | 모모

첫사랑을 찾기 위해 매일 같은 버스에 오르는 노인 프랭크와 그를 돕고 싶은 이웃들의 첫사랑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유쾌한 전개와 사랑스러운 인물, 가슴을 울리는 따스한 결말과 공동체를 향한 희망적 메시지로 기분 좋은 감동을 선사한다.



철학자와 달리기

마크 롤랜즈 | 유노책주

중년의 철학자가 42.195km의 마라톤을 달리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와 성찰을 담고 있다. 달리가 자극하는 매력적인 명상이 저자 특유의 유쾌하고 감각적인 문장을 통해 펼쳐진다. 인생의 고비를 돌파할 힘이 필요한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독자퀴즈

QUIZ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은?

- ①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 양성사업 ②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③ 고용허가제도 ④ 근로자 건강보호제도

※ 10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4년 9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지수(경기 고양), 김진용(경북 포항),
백종순(경기 파주), 이해철(서울 광진),
전병현(인천 남동)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9월호 정답 ④ 신재근로자 직업훈련

10월 6·25 전쟁영웅

뛰어난 정보력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경찰 영웅

대한민국 경찰 경감 **남제평**

1918. 10. 25. ~ 1950. 8. 6.



남제평 경감(당시 계급: 경위)은 곡성경찰서 근무 중 북한군이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50년 7월 29일 전라남도 곡성 압록교 부근에서 매복작전을 전개, 적을 섬멸하며 아군의 방어작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1950년 8월 6일 적의 보복 공격으로 태안사 전투 중 전사했다.

남제평 경찰 경감 Story

1948년 11월 15일 경찰 경위 임용

1950년 7월 29일 압록 전투 참전

※ 북한군 생포 3명, 사살 52명, 다수 무기 노획

1950년 12월 31일 경감으로 추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